

곡성 소아과, 6개월 만에 누적 진료 환자 2400명 돌파

순천·광주로 원정 진료 떠나던 부모들 걱정 덜어...만족도 높아

전남 곡성군이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문을 연 소아과가 6개월 만에 2400여명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곡성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지난 5월 개원한 '곡성에서 매일 만나는 소아과' 누적 진료 환자는 2,428명으로 집계됐다. 곡성지역의 소아청소년 2,400여명이 1회 이상 소아과를 방문한 셈이다.

또 0-6세 소아과 방문율은 소아과 개설 이전보다 최대 87% 증가했으며 진료 만족도도 100점 만점을 기록할 정도로 높았다.

곡성지역의 소아과 개설은 출생아 증가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22년 44명에서 지난해 87명, 지

난 10월 말 기준 79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신생아 부모들은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됐다"고 응답했다.

곡성군은 1965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제도가 도입됐지만 소아과가 없어 지역민들은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순천·광주까지 원정 진료를 떠나야 했다.

곡성군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해 지난해 8월 출장 형식의 소아과를 우선 개설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수시 진료가 가능한 소아과를 요구해 고향사랑지정기부를 다시 추진해 지난 5월 2일 개원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곡성에서 매일 만



곡성에서 매일 만나는 소아과 진료 모습.

나는 소아과는 단순한 의료기관을 넘어 전국의 기부자들이 보내준 관심으로 만들어진 기적"이라며 "지역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소아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곡성/이정수 기자



11월 27일 영광군이 향화도 어촌계 및 대우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영광군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영광군, 해상풍력 '배후 항만 조성' 속도낸다

최근 주민설명회 열고 기본계획 공개·의견 수렴

전남 영광군이 해상풍력 전진기지 구축에 속도를 내고 나섰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11월 27일 (목), 향화도 어촌계 및 대우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영광군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배후항만 조성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설명회에선 군(郡) 단위 지자체에서는 드물게 11GW(기가와트)급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용 항만 조성 구상을 공개했다.

현재 영광군 관할 해역과 EEZ(배타적 경제수역) 일대에서는 총 17개 사업자가 약 11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

동되기 위해선 유지관리(O&M) 거점 항만이 필수적이다.

영광군이 향화도항 인근 20ha 부지에 '유지관리 항만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이유다. 클러스터에는 'O&M(운영·유지보수) 지원시설', 'CTV(승무원 수송선) 접안 시설', '인증·교육센터', '홍보·체험관' 등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한데 묶는 핵심 시설들이 포함된다.

영광군은 이를 통해 향화도가 전남 북부 해상풍력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계획 수립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가기 위한 첫 절차"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배후항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산림청이 산사태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산사태 예방·대응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산사태취약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민가 및 건축물 중심의 63개 지구 단위로 재편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지난 여름철에는 강우 상황을 사

광양시, 2025 산사태 예방·대응 우수기관 선정

산림청 평가서 전국 최초 3년(2023~2025) 연속 선정

전에 예측해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을 일몰 전까지 안전한 장소로 선제 대피시켰다. 아울러 시비로 확보한 긴급 구호물품과 방수용 파우치를 배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같은 선제적 조치 덕분에 지난 7월

초 다압면 일원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정도의 상황에서도 인명 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광양시는 산사태 예방 교육, 주민대피 훈련, 대응훈련 영상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광양/신선호 기자

구례군,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성과발표회 성료

8개 읍면서 진행...주민참여 확대·자치역량 강화 돋보여

전남 구례군은 지난 11월 19일부터 29일까지 8개 읍면에서 진행된 「2025년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한 해 동안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한 문화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8개 읍면에서 순차적으로 열렸으며, 각 읍면의 특색을 살린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라인댄스, 난타, 아랑장구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연은 물론, 서예, 보타니컬아트,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미지 작품 등 다양한 창작물 전시가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운영된 주민자치 홍보부스와 체험 행사도 현장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특히 구례읍과 마산면은 성과발표회가 함께 주민총회를 열어 마을 의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에 의미를 더했다.

한편 김순호 군수는 "성과발표회를 통해 주민들이 1년간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고, 마을 현안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민 주도형 자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진도아리랑상품권 '후적립(후캐시백) 방식' 도입

진도군, 카드·모바일결제 대상 오늘부터...부정유통 예방 목적



진도군은 오늘부터 카드와 모바일결제 대상인 '후적립(후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지역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구조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며, 결제 후 즉시 적립이 되는 방식으로 상품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후적립(후캐시백)'은 상품권을 정가로

충전한 후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일정 비율의 적립으로 돌려받는 구조로, 기존처럼 상품권 구매 단계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결제 단계에서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5퍼센트(%) 할인으로 진도아리랑상품권 1만 원을 카드 또는 이동통신형(모바일형)으로 구매했을 때, 구매한 금액 그대로 충전이 되고 결제 시 1천5백 원이 적립된다.

한편, 지류형 진도아리랑상품권은 기존과 똑같이 '선할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재 보유 중인 카드, 이동통신형(모바일형) 상품권 잔액은 모두 사용한 이후부터 '후적립(후캐시백)' 방식이 적용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후캐시백(후적립) 방식은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힘이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신규 공무원과 함께하는 '마주온(溫)데이' 개최

담양군, 소통 간담회·관광지 탐방으로 군정 이해도 높여

담양군(군수 정철원)이 지난날 27일 2025년도 신규 공무원 26명을 대상으로 군수와 함께하는 열린 대화 프로그램 '마주온(溫)데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주온(溫)데이'는 신규 직원들이 공직 생활 초기에 겪는 고민을 나누고 군정 방향을 듣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간담회에서는 업무 절차, 조직문화, 주민 응대 등 여러 주제를 두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신규 직원들은 해동문화예술촌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담양의 관광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직접 체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신규 직원은

"처음 접하는 행정 업무들에 걱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고민했던 업무들에 대해 군수님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양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체험하면서 지역사회 이해도가 높아져 앞으로의 업무에 큰 자양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철원 담양군수는 "여러분은 담양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이라며 "앞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며 따뜻하고 적극적인 공직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